

# 간의 염증성 가성종양

-1에 보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맹영희·박재훈·김운화  
박용구·이주희·양문호

##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 A case report -

Young Hee Maeng, M.D., Jae Hoon Park, M.D., Youn Wha Kim, M.D.

Yong-Koo Park, M.D., Juhie Lee, M.D. and Moon Ho Yang, M.D.

Department of Pathology,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is a rare benign lesion that usually has been discovered at laparotomy. This lesion is inflammatory and reactive, but the etiology remains unknown.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is of the interest not only because of its rarity also because it needs to be clinically differentiated from hepatocellular carcinoma and other malignant tumors.

In this report, we describe a case of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with fever and weight loss in a 46-year-old male. Grossly, the lesion showed a rather well demarcated, gray white to pale yellowish nodular mass measuring 7×5.5×5 cm in dimensions. Microscopically, the tumor was composed of diffuse infiltration of predominantly plasma cells, lymphocytes and histocytes associated with fibroblastic proliferation. (**Korean J Pathol 1994; 28: 90~92**)

**Key Words:** Inflammatory pseudotumor, Liver

간에서 발생한 염증성 가성종양은 임상적으로 원발성 악성종양과 혼동하기 쉬운 매우 드문 양성종괴이다. 1953년 Pack과 Baker<sup>1)</sup>에 의하여 간의 염증성 가성종양이 처음 보고된 이래 국내의 3예를<sup>2,3)</sup>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54예만이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sup>4~7)</sup>. 이 질환의 원인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종류의 염증성 질환에 의한 국소적인 간 손상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sup>5,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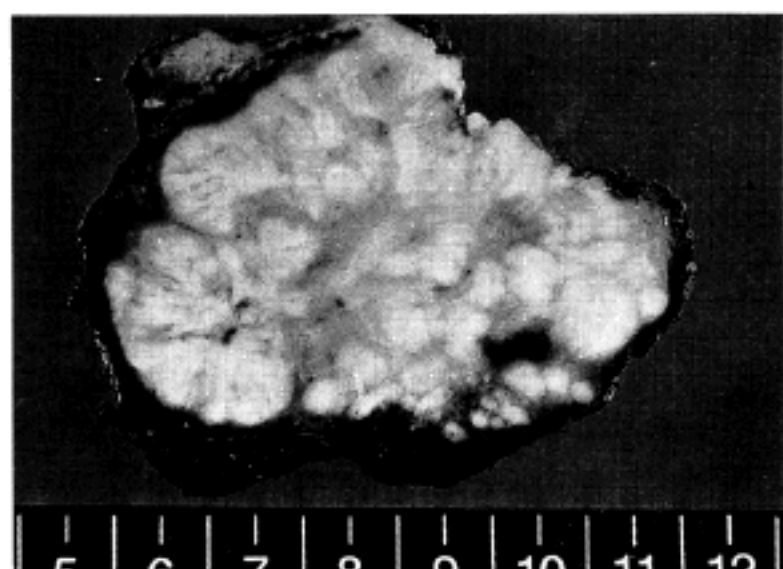
최근 저자들은 4년전 간내결석증으로 치료를 받았던 46세 남자에서 발생한 염증성 가성종양을 경험하였기에 그의 회귀성과 아울러 이 질환의 병인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46세 남자가 20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과 체중감소를 주소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내과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4년전 간의 좌외측분절, 총담관 그리고 담낭에 담석이 있어 담낭적출술과 흡입에 의한 간내결석 적출술을 시행받았고 그 당시 진단된 당뇨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내원당시 시행한 진찰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검사소견에서도 말초혈액의 백혈구증가와 중성구가 93%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간기능 검사에서는 alkaline phosphatase가 309 IU/ml로 증가한 것외에는 이상소견이 없었다. 초음파 검사와 복강 혈관조영술에서 간좌엽의 내측분절에 균등한 밀도를 가진 종괴가 관찰되었고 전산화 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간내에 남아있는 담석과 함께 경계가 불분명한 저밀도 음영이 관찰되어 간농양이라는 임상진단하에 약 40 cc 정도 배농을 시행하였으나 종괴가 소실되지 않아 내원 한달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소견상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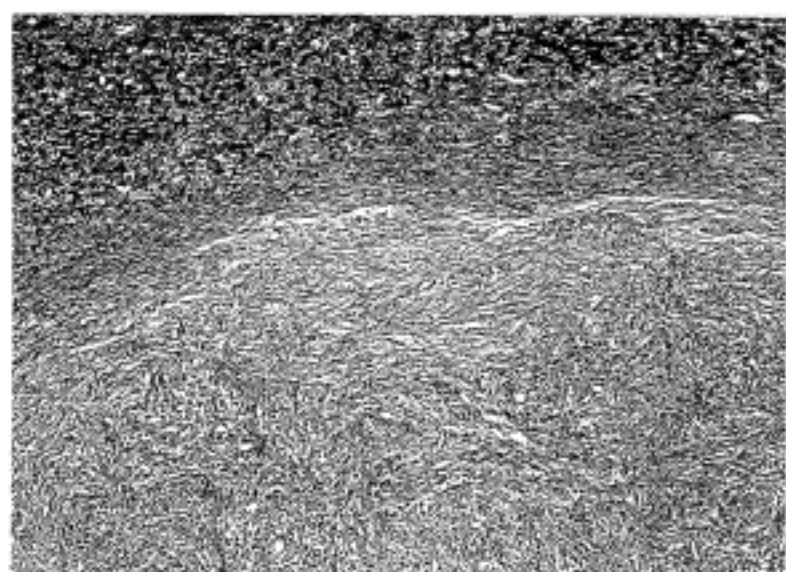
접 수: 1993년 5월 31일, 게재승인: 1993년 8월 9일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편번호 130-70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해부병리과, 맹영희



**Fig. 1.** Cut surface reveals a rather well demarcated, gray white to pale yellowish solid tumor ma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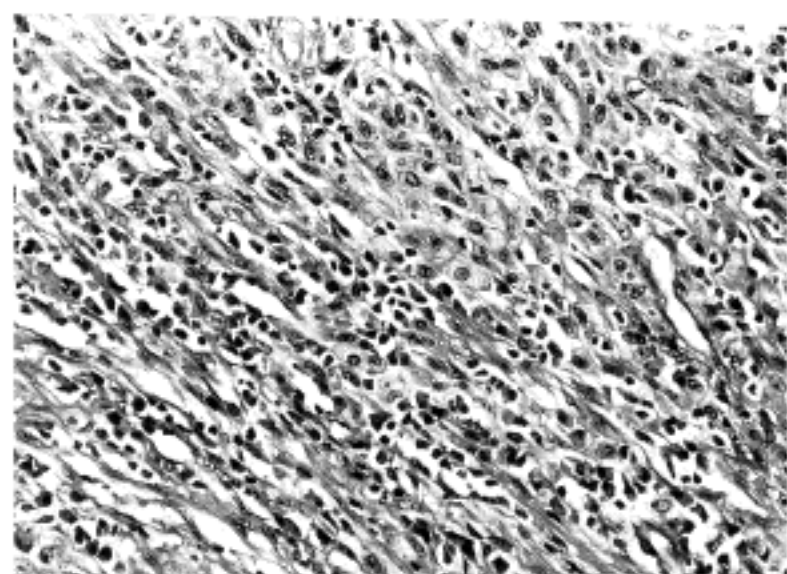


**Fig. 2.** Microscopic finding shows localized destruction of normal architecture and diffuse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with fibroblastic proliferation.

의 좌엽 내측분절에 크기가 7×6 cm 정도되는 둥근 모양의 종괴가 관찰되었는데 종괴의 표면은 섬유조직에 의하여 잘 둘러싸여 있어 주위의 정상 간조직을 약간 포함하여 종괴적출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종괴의 표면은 울퉁불퉁하게 결절성으로 돌출되어 있었으나 피막은 잘 유지되어 있었고 절단면에서는 7×5.5×5 cm 크기의 회백색 또는 연황색의 단단한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병변의 경계는 비교적 분명하였고 중심부에서는 섬유성 반흔도 관찰되었다(Fig. 1).

조직학적으로는 주위의 정상 간세포들을 파괴하는 심한 염증세포의 침윤이 있었는데 주로 형질세포와 거품모양 조직구와 림프구, 약간의 호산구 그리고 다핵



**Fig. 3.** Inflammatory cells are composed predominantly of plasma cells, lymphocytes, and foamy histiocytes.

거대세포들도 관찰되었고 다양한 정도의 초자양 변화를 보이는 섬유모세포의 증식도 동반되었다(Fig. 2 & 3). 종괴내에 간세포의 집단이나 담관구조는 관찰되지 않았고 문맥역내에서도 염증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면역조직화학 염색에서 형질세포는 kappa와 lambda에 모두 강하게 양성으로 염색되어 다클론 성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섬유모세포와 비슷한 방추세포는 vimentin에 양성으로 염색되었고, 조직구와 다핵거대세포는 lysozyme에 양성으로 나타났다.

염증성 가성종양은 황색육아종, 형질세포종양, 비만세포육아종, 조직구종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런 다양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조직학적 소견은 비슷한 초자양 교원섬유가 밀집한 곳에 주로 형질세포와 조직구 및 림프구의 침윤 그리고 방추형세포의 증식을 특징으로 한다<sup>7)</sup>. Someren<sup>4)</sup>은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 초자양 경화형(hyalinized sclerosing type), 황색육아종형(xanthogranuloma type), 그리고 형질세포 육아종형(plasma cell granuloma type)으로 나누었지만 이는 질환의 경과와 기간에 따른 형태학적 표현에 불과하며 같은 종괴내에 여러가지 조직학적 형태가 나올 수 있고 현재까지 조직학적 양상과 질병의 병기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조직학적 분류는 실제로 의의가 없다 하겠다.

이 병변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예에서 임상적으로 발열과 말초혈액내 백혈구 증가를 보이고 예후가 좋은 점,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주된 침윤세포가 다클론성 형질세포인 점으로 미루어 일반적으로 반응성 염증상태로 취급한다<sup>5,7)</sup>. 소수에서 대장균과 Gram 양성 구균이 배양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인균은 발견되지 않지만 Horiuchi등<sup>8)</sup>은 음식이나 만성 충수돌기염을 통해 들어온

균들이 문맥정맥을 타고 간에 들어와 염증반응을 일으켜 생긴 폐쇄성 정맥염에 육아조직반응이 일어나 점점 커진 것이라 하였다. 또한 염증성 가성종양의 본질을 밝히려던 간농양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간농양이 괴사 주변부에 조직구와 거대세포에 의해 육아종의 모양을 보이거나 또는 용해단계에서 초자양 섬유화를 보이면 그 조직학적 양상이 염증성 가성종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간농양의 육아종성 형태는 염증성 가성종양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5)</sup>.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반복되는 상행성 담관염이 기원이라는 보고가 있다<sup>4)</sup>. 본 증례에서 간내담석증을 치료한 후 몇 년 뒤 다시 증상이 나타났고 임상적으로도 간농양으로 생각되었던 점은 간내담석에 의한 간내 담관의 반복된 염증이 염증성 가성종양의 발생기전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하겠다.

현재까지 문헌에 기술된 54예를 분석해 보면 남자가 39예, 여자가 14예 그리고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1예로서 남자에게서 2.8배 호발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10개월에서 부터 83세까지 다양하지만 평균연령은 37.3세로서 30~40대에 호발하였다. 환자의 대부분은 발열과 체중감소를 주증상으로 하며, 42예에서는 종괴가 단발성이었고 10예는 다발성이었다. 종괴의 위치는 26예가 우엽, 13예가 좌엽, 6예가 좌우엽에 다 있었고 4예는 간문부에 있었다. 종괴의 크기는 1~25 cm로 매우 다양하지만 평균 6.2 cm이었다<sup>5,7)</sup>. 종괴를 절제한 경우에는 모든 완쾌되었고, 수술이 불가능하여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로 치료한 경우에도 예후는 좋았으며<sup>4,5,7)</sup> 저절로 치유된 경우도 있었다<sup>6)</sup>. 부분 절제후 재발한 경우는 있지만 이 병변 자체로 사망한 예는 없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sup>5,7)</sup>. 본 증례에서도

수술후 8개월이 경과하였는데 별다른 후유증이나 재발의 증거도 없는 상태이다. 간의 염증성 가성종양의 중요성은 임상적으로 종괴로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다 수술이나 처치를 피하기 위해 간암, 전이암등과의 감별을 요한다는데 있다<sup>5,7)</sup>.

### 참 고 문 헌

- 1) Pack GT, Baker HW. *Total right hepatic lobectomy. Report of a case. Ann Surg* 1953; 138: 253-8.
- 2) 김용일, 김우호, 강윤경. 간의 가성종양-담관염성 기원을 시사하는 2예 보고. 대한병리학회 제 24 차 추계학술대회. 1990, A96.
- 3) 유영주, 양영일, 윤혜경, 주종은.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 a case report -* 대한병리학회 제 17 차 춘계학술대회 초록집. 1992, A92.
- 4) Someren A. *Inflammatory pseudotumor of liver with occlusive phlebitis. Report of a case in a child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Am J Clin Pathol* 1978; 69: 176-81.
- 5) Horiuchi R, Ichida T, Kojima T, Shikata T.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Clinico-pathologic study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Cancer* 1990; 65: 1583-90.
- 6) Collapudi P, Chejfec G, Zarling E. *Spontaneous regression of hepatic pseudotumor. Am J Gastroenterol* 1992; 87: 214-7.
- 7) Shek TWH, Kg IOL, Chan KW. *Inflammatory pseudotumor of the liver. Report of four cases and rview of the literature. Am J Surg Pathol* 1993; 17: 231-8.